

순천시청 여자유도 전국대회 선전

박다솔 실업선수권 우승 금 1·은 1·동 1개 획득

순천시청 여자유도팀이 2022 안산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 1개, 은 1개, 동 1개를 획득했다.

27일 전남유도회(회장 임종안)에 따르면 순천시청 여자유도팀 박다솔이 최근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이 대회 여자일반부 -57kg급 전국 최정상에 올랐다.

한국여자유도 국가대표인 박다솔은 1회전에서 하주희(고창군청)를 만나 누르기로 한판승을 거둬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신유나(광주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안뒤축후리기로 절반승을 따내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서수빈(고창군청)과 치열한 접전 끝에 발다리로 절반승을 거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해미는 여자일반부 -70kg급 1회전에서 양지영(제주도청)을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기관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부상 때문에 기권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순천시청은 여자부 단체전에서 총복도청과 포



2022 안산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순천시청 여자유도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항시청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한편, 여주시청 정진형은 남자일반부 +100kg 2회전에서 양성민(경남도청)을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제압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김양호 순천시청 유도감독은 "힘든 훈련을 견뎌낸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거라고 생각한다"며 "전남체육 발전과 더불어 전남유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복귀전 앞둔 신유빈 "경기 감각 회복이 목표"

손목 피로골절 부상 2달 만에 내달 1일 튀니지 WTT 출전

"성적보다는 경기 감각 회복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손목 피로골절로 고생한 여자탁구 스타 신유빈(16·대한항공)이 2달 만에 테이블로 복귀하는 소감을 27일 밝혔다.

신유빈은 소속사 매니지먼트GNS를 통해 "수술 경과도 좋고 회복도 잘 되고 있지만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서 "성적보다 경기 감각 회복에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

신유빈은 내달 1일 튀니지에서 열리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컨텐더 튀니지 2022 대회에 출전한다.

손목 피로골절 부위에 핀을 박아넣는 수술을 한 뒤 처음으로 나서는 실전 무대다.

신유빈은 지난해 11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오른손목에 피로골절 부상을 입었다.

재활 끝에 올해 5월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서 열린 WTT 피더 대회에서 복귀전을 치렀으나, 부상 부위에 또 통증을 느껴 라켓을 다시 내려놨다.

결국 신유빈은 수술을 선택했고, 다시 두 달을 쉬어야 했다.

매니지먼트GNS에 따르면 수술 경과와 회복도



신유빈

복도 빠르다. 신유빈은 복귀전을 앞두고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신유빈 측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복귀 시점을 조절하던 중 대회 출전을 통해 경기력을 회복하겠다는 신유빈의 의지에 따라 복귀전을 치르게 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대 태권도 대통령기 겨루기 부문 은 1·동 3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태권도부가 최근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7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겨루기 부문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여자 대학부 -67kg급에 출전한 김지혜(1년)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49kg급 오재운(1년)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대학부에서도 메달 소식을 전했다.

남승우(2년)는 -58kg급에서, 이원준(2년)은 -87kg급에서 각각 동메달을 따냈다.

강경도 감독은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대학부 강팀의 면목을 이어가고 있다"며 "체력과 기술 훈련 등을 통해 남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국내 태권도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회로 알려져 있으며, 전국의 태권도선수들과 관계자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제57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겨루기 부문에 참가한 광주대 태권도부 선수들을 모음.



이대론 못 보내 27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22 캐나다 챔피언십 축구 결승전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 선수가 토론토 FC 선수의 옷을 붙잡고 볼 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형제 국가대표...NBA 아테토쿰보와 형제들 그리스 대표팀 소집

미국프로농구(NBA)를 주름잡은 야니스 아데토쿰보(28·밀워키)를 필두로 '아테토쿰보 4형제'가 나란히 그리스 국가대표팀에서 모인다.

그리스농구연맹은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야니스 아데토쿰보를 비롯해 나머지 3형제가 포함된 예비 23인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다음 달 예정된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월드컵 유럽 예선과 오는 9월 열리는 FIBA 유로바스켓(유럽선수권대회) 출전자 선발된 인원이다.

다음 달 1일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선수단은 그달 9일과, 11일 스페인과 친선경기를 펼치는 등 당급전을 진행하면서 최종 12인을 추릴 예정이다.

2019 FIBA 중국 월드컵 이후 3년 만에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야니스 아데토쿰보는 부상 등 발달 상황이 없다면 무난히 12인 엔트리에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줄곧 NBA에서 두 차례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쥔 그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왔다.

하지만 야니스의 형인 타나시스(30·밀워키)와 두 동생 코스타스(25·ASVEL 리옹-빌뢰르반), 알렉스(21·위스콘신 허드)는 기량이 야니스만 못해 훈련과 친선 경기를 통해 가치를 입증해야 할 상황이다.

198cm 포워드 타나시스는 2019 중국 월드컵 당시 최종 12인에 들어 경기당 평균 12분가량 출전 시간을 받았던 만큼 동생들보다는 사정이 낫다.

2014년 2라운드 51순위로 NBA 뉴욕 닉스에 지명된 타나시스는 야니스만큼 인상적인 활약은 보이지 못하고 이듬해 방출됐다.

이후 G리그(NBA의 하부 리그)와 유럽 리그를 전전하다 야니스가 완전히 팀의 주축으로 올라선 2019년 밀워키 벅스에 합류하며 NBA 경력을 이

어오고 있다.

두 형들과는 달리 208cm 포워드 코스타스는 NBA에서는 떠난 상태다.

2018년 마지막 드래프트 순번인 60순위로 델러스 매버릭스에 지명된 그는 현재 프랑스 1부 리그 ASVEL 리옹-빌뢰르반에서 뛰고 있다.

203cm 신장에 역시 포워드로 뛰는 막내 알렉스는 형제 중 유일하게 NBA에 지명되지 못했지만, 미국에 남아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낙방한 그는 토론토 랩터스의 G리그 팀인 랩터스905에서 뛰다가 최근 밀워키 산하 팀인 위스콘신 허드로 트레이드되며 야니스, 타나시스와 재회하게 됐다.

아데토쿰보 형제는 총 5명이다. 맏이인 프랜시스 아데토쿰보(34)는 나이지리아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했고 가족들이 그리스로 거처를 옮긴 뒤에는 축구와 농구를 병행했다. /연합뉴스

배구 이다영 루마니아로...라피드 부쿠레슈티 입단

이다영(26)이 루마니아 여자프로배구 라피드 부쿠레슈티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라피드 부쿠레슈티는 지난 25일 구단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2022-2023시즌 첫 영입 선수를 소개한다"며 "우리의 새로운 세터 이다영은 한국 대표팀과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한국 V리그) 흥국생명, 현대건설에서 뛰었다. 라피드에 온 걸 환영한다"고 썼다.

이다영도 26일 자신의 SNS에 라피드 부쿠레슈티 입단 소식을 전했다. 라피드 부쿠레슈티는 루마

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를 홈으로 쓰는 구단이다.

이다영은 2021년 2월 학교폭력 피해자로 지목되면서 한국프로배구 V리그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2021-2022시즌 그리스 A1리그 PAOK에서 뛰며 선수 생활을 이어간 이다영은 2022-2023시즌에는 그리스로 '한 단계 위'인 루마니아 리그로 이적했다.

PAOK에서 뛰다가 왼쪽 무릎 부상을 당해 시즌 중에 한국으로 돌아온 이다영은 재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한산: 용의 출현
- 2관 외계+인 1부, 보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
- 3관 미니언즈2, 보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
- 4관 한산: 용의 출현
- 5관 한산: 용의 출현
- 6관 한산: 용의 출현, 미니언즈2
- 9관 한산: 용의 출현
- 7관 씨네캐슬: 탐관: 매버릭,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보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
- 8관 씨네캐슬: 탐관: 매버릭, 헤어질 결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국악여행
일시 : 2022.07.28.(목)-30.(토)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월)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즐거움
문화
산책

